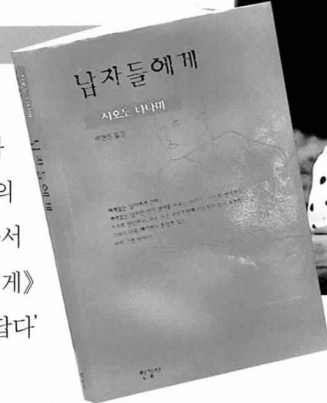


한 여성의 유쾌한 '남자품평서'

방송작가 목연희씨가 뽑은 시오노 나나미의 《남자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남자의 모습이 어떤지 잘 보여주죠. 그건 자기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의주장에 파묻히지 않는 유연한 사람, 그래서 더욱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남자죠."



만년조연 윤다훈을 결렁결렁한 바람둥이로 분장, 일약 스타덤에 등극시키는 등 TV 시트콤계를 휘몰아쳤던 <세 친구>의 작가 목연희씨(32). 그녀가 이 세상 기미혼 남성들의 필독서로 지목한 것은 바로 시오노 나나미의 에세이집 《남자들에게》(한길사)다. 제목만 봐도 '과연 못말리는 세 남자의 창조주답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거꾸로 가는 세상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다. 출간 당시 일간지 서평도 여자가 썼고,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독자반응도 여자 목소리다. 왜 그럴까? 목씨는 자기의 독후감을 토대로 볼 때, 시오노 나나미가 여성들의 대남성 잠재욕구를 명쾌하게 꼬집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읽다보면 '아! 남자들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정말 매력 있는 남자의 모습이 어떤지 잘 보여주죠. 그건 자기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의주장에 파묻히지 않는 유연한 사람, 그래서 더욱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남자죠."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로 건너가, 그곳 남자와 결혼한 여자. 그러면서 로마사를 쓰기도 하고, 로마사를 이끈 남성 카리스마를 밑바닥까지 연구한 여자. 목씨는 그런 시오노 나나미의 실제생활과 특히 남성취향은 어떻게 궁금증을 풀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랑 취향이 매우 비슷하더군요. 책을 덮는 순간 기준에 가졌던 남성관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 책의 경우 진도도 일사천리로 나갔다고 한다. 다른 심리연구서를 읽으면 말은 맞는데 재미없고 공부한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이 책은 경쾌하고 가볍고 진지해서 좋다고 목씨는 말한다. 게다가 나이 지긋한 사람의 통찰력이 글을 장악하고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론 시오노 나나미의 소녀 같은 면도 엿볼 수 있어 '귀엽다'고 한다. <세 친구> 대본을 쓸 때도 이 책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자들의 '섬세한' 일상습관을 재현하는 데 유용했다고 목씨는 말한다.

1993년 KBS 공채로 입사해 방송작가 생활을 시작한 목씨는 <테마게임> <오늘은 좋은 날>을 쓰는 등 탄탄대로를 밟아왔다. 현재는 내년 초 SBS에서 방영될 예정인 시트콤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녀는 "기혼이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응수했다. 유럽 쪽으로 아이디어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마다 유럽 남자들의 스타일을 새겨서 본다는 말을 전해 들으며 미뤄 짐작할 뿐이다.

—강성민 기자

표지디자인, 저와상의하세요

어려운 출판 사정에 책한권 널라치면 이것 저것 고민할 것이 많으시죠? 특히 표지는 원하는 디자인, 가격, 일정 등 생각할 것이 많을겁니다. 저와 상의하세요. 이력을 자랑하지 않고 이 책이 제 인생의 마지막 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관참은 디자이너 한명 만나보세요.

019-398-9009 / (02)2268-4769 이근산 e-mail/artpost@unitel.co.kr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더욱 새로워진 **신간종합정보지, 출판저널**이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 ▶연간 구독료 : 40,000원
- ▶반년 구독료 : 22,000원

출판저널 구독문의 : 732-1433

